

북경창작센터 입주작가 성과 한자리서 만난다

광주시립미술관 오늘~8월 26일 '2016-2017 북경질주' 전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은 지난 2009년말 국내 공공미술관 중 최초로 중국 북경에 광주시립미술관 중국 북경창작 센터를 개관했다. 지역 작가들이 해외에 머물며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 경험들을 자신의 작품 세계에 녹여내며 또 다른 예술 세계를 만들어 가는 터전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창작 센터는 지역 작가 지원과 함께 광주 문화예술을 알리고, 한중 문화교류에도 큰 역할을 했다.

171 작가로 김해성, 전현숙 작가 등 5명이 참여한 이래로 지금까지 모두 43명의 지역 작가가 창작센터에 머물렀다. 지난 2011년부터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중국 작가들도 입주해 지금까지 20명의 중국작가가 참여, 활발한 작가 교류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북경 환타에 예술자리에 있던 창작센터를 송광 예술지구로 옮겨 한중교류전, 아트페어, 특별기획전 등 다양한 전시를 열고 있다. 올해 참여작가는 김정연, 오영화, 임용현, 조현택, 최혜미씨 등 모두 5명이다.

북경센터에 머물렀던 작가들은 성과 발표전을 통해 변화된 작품 세계를 지역 미술계에 선보여왔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북경에 머물렀던 제 8기-9기 입주작가들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6-2017 북경질주'전이 12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5-6전시실에서 열린다.

참여작가는 제8기 입주작가, 엄기준, 장미란, 조정태, 표인부씨와 2017년도 제9기 입주작가 김병택, 김연아, 이동환, 이승하씨 등 모두 8명이다.

김병택 작가는 북경에 도착해 느낀 다양한 자극과 감각의 변화 가운데 집집마다 쌓인 화학연료와 석탄 덩어리를 시각화한 '유산-Made in china' 시리즈를 선보이며 엄기준 작가는 현대사회를 상징하는 '토루소'와 '바디' 시리즈

표인부·조정태·이승하 등 8명 참여

14일 개막행사·워크숍 등 열어

2009년 개관 지역작가 43명 작업

중작가 20명 참여 활발한 교류 활동



광주시립미술관 북경 창작센터.

를 전시한다.

조정태 작가는 실제로 경험한 중국 고대 역사, 문명의 정서와 기준에 알고 있는 것들과의 차이를 통해 '객관적 자아의 실제'를 탐구하는 데 몰두했고 그 결과물 중 하나인 '나무를 심다'를 선보인다.

또 이동환 작가는 불을 지르고 집을 태우는 의식에서 모티브를 얻은 '삼계화택(三界火宅)'을 전시하며 표인부 작가는 캔버스에 강렬한 붉은색 종이를 수없이 이어 붙인



김연아 작 'The City No.017-1'

'바람의 기억-붉은 색의 강박'으로 관람객을 만난다.

개막행사는 14일 오후 5시에 진행되며, 개막행사에 앞서 오후 3시에는 '북경창작센터 송광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워크숍을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박종규 북경창작센터 매니저가 발제를 하며 북경창작센터 1기부터 9기 입주작가들이 함께 자리해 광주시립미술관의 한국문화예술 전파와 북경창작센터의 역할, 새로운 송광시대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문의 062-613-715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읽기

그저 좋아서 시작했을까? 아님 풀이 오르는 창작 욕구가 운명이라고 느껴 있을까? 그것도 아님 대한민국의 지옥 같은 입시제도에서 부족한 학업의 대안으로 미술대학을 선택해서였을까?

적어도 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참 행복했고, 참 멋있음을 인지했고, 겉말이 있었다. 그게 청소년기였다. 예술을 직업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한 건 대학원 졸업을 앞둔 후였다. 정확히 얼마가 친구와 나누는 통화내용을 듣고 부터였다. "지비 딸 뭐하나?" "아, 그림 그린다고 저러고 다니네. 취직이나 하고 시집이나 갔으면 쓰겠는데." 그때 알았다. 나 혼자 멋에 살고 있었음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예술가가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았다.

열심히 도서관을 다니며 다양한 미학공부를 하고 오후엔 술집이나 카페



신수정
서양화가

없지만 고통 속에서 성장해온 그들의 삶을 동경했다.

예술가는 늘 갈망하고 불안정했으며, 사회적 약자와 정의에 앞서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그렇게 자신을 믿고 묵묵히 작업으로 자신을 노출시켰다. 내가 닮고 싶은 예술가는 그랬다. 예술가는 도덕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 공정심이 있어야하고 흥이 있으며 자유로움과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유와 고독의

우리 모두 예술가로 살자

의 벽화를 그려 웅돈도 제법 벌여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었다. 누추한 작은 작업실을 얻었고 늦은 저녁엔 입시생에서 만난 셈이다. 그때의 무한신뢰가 지금도 여전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세월이 흘러 점점 예술가라는 명함이 자신과의 싸움과 원초적으로 비교되기 시작했고 세상과 사회에 노출된다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진정 고뇌하는 시간, 깊이 있는 노동의 작업 시간, 혼자 있는 시간, 고독한 시간을 즐기는 예술가인지 되돌아 보게됐고 그런 마음을 나눌 동료 예술가를 갈구했다. 셰익스피어, 고흐, 베토벤의 고뇌와 감성을 100% 따라할 수

잡재 능력이 결여될 때 쉽사리 다수에 부화뇌동하는 군중으로 변해 내 자신을 놓칠지도 모른다. 예술가의 유일한 특권은 자유와 향유가 아닐까? 그 특권은 고독을 감내할 수 있는 정신에게만 가능할 것이고 우리 인간이 지향해야 할 미덕이기도 하다.

나이 50이 갓 넘은 나는 '아름다운 중년'을 준비한다. 고즈넉한 양림동 작업실까지 걸어서 출퇴근하며 삶이 주는 여유를 나눠 주었다. 아버지는 내가 화가로 전시도 하고 작품에 몰두하길 바라셨다. 아버지는 직업이 예술가인 딸을 인정해주셨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거라는 말씀과 함께 다름을 인정해준 첫번째 어른을 온종기 가까운 곳에서 만난 셈이다. 그때의 무한신뢰가 지금도 여전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예술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누구나 될 수 있다. 어쩌면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세계를 이루고 다시 허물고 또 구축하며 절대 고독에 놓이는 일인지도 모른다. 모든 사람이 한방향으로 갈 때, 거슬러서 내려오는 자가 있다면 그를 예술가라고 말하고 싶다.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찾아 예술가로 살자. 우리모두 예술가로 살자.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국 전통연희와 만난 새로운 '맥베스'

극단 해보마 '두드려라...'

1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한국 전통연희와 만나 새로운 스타일의 연극으로 재탄생한 셰익스피어의 '맥베스'가 광주에 온다.

광주문화재단은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초청기획사업으로 극단 해보마의 '두드려라, 맥베스'를 무대에 올린다. 16일 오후 3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극단 해보마는 '한국공연의 세계화'라는 표제를 안고 무대 위에서 살아있는 배우,

무대 밖까지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자하는 예술단체로 우리 역사가 선물해 준 전통의 미학을 기반으로 한 창작활동과 작품을 새로이 발굴해 알리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두드려라, 맥베스!'는 한국 전통연희와 셰익스피어 맥베스의 스토리텔링을 접목시킨 새로운 스타일의 드라마틱 퍼포먼스로, 2013년 국내 초연 이후 중앙아시아 투어, 우즈베키스탄 국립극단 공식초청, 프랑스로 2개국 투어 등 해외에서도 인정받은 작품이다. 한국적 미학을 맥베스에 접목시켰으며, 주인공 맥베스의 심리적 갈등을

드라마의 축으로 두면서 다양한 한국 전통연희들을 펼쳐놓는 방식으로 드라마와 퍼포먼스를 함께 녹여냈다.

각색에 안경모, 연출감독 김숙희, 드라마투르그 김육관, 연출 황준형이 참여하며 박경주, 강해진, 배아영, 이종현, 홍아란, 주창환, 김성재, 이성수, 조재욱, 이지훈, 고홍선, 김동진 등이 출연한다.

광주문화재단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7월 7일 '세종솔로이스츠의 세레나데'와 10월 4일 윤의중 예술감독이 이끄는 '국립합창단의 흥겨운 합창여행'을 차례로 선보인다. 전석 5000원. 문의 062-670-7942. /전은재 기자 ej6621@



극단 해보마의 '두드려라, 맥베스'

반 고흐 미술관 명작들 감상

'인문지행' 행사... 17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세계의 명화를 감상하는 인문지행의 문화예술기획이 오는 17일 오후 2시-4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36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자리한 반 고흐 미술관의 명작들을 감상한다.

반 고흐 미술관은 단일 미술관으로는 반 고흐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곳이다. 1973년에 개관한 반 고흐 미술관은 연간 150만 명이 방문하는 곳으로 고흐의 유화 작품 200여 점과 소묘 작품 500여 점, 동생 테오와 주고받은 수백통의 편지, 고흐 개인의 소장품 등이 전시돼 있다.

이번 기획에서는 반 고흐가 생 레미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그렸던 작품들을 중심으로 감상한다. 대표작은 '바느질하는 시인과 딸', '갑자 먹는 사람들', '구두', '노란 집', '해바라기' 등이다.

반 고흐 작
'구두'



인문지행의 문화예술기획은 세계 미술관의 명작 감상을 통해서 문화 예술적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며, 인문적 정신의 확장을 지향하는 시민강좌다. 기획과 진행은 '인문지행'의 대표 심옥숙 박사가 맡고 있으며, 참가비는 없다.

인문지행: http://cafe.daum.net/h-arete. 문의 010-5205-5668, 062-229-068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산구 아르코공연연습센터

16일까지 하반기 대관 모집

광산구 소촌아트팩토리 '아르코공연연습센터@광주' (이하 아르코공연연습센터)가 16일까지 올해 하반기 정기대관을 모집한다.

지난해 10월 개관한 아르코공연연습센터는 광주·전남 최대 규모의 공연 연습시설로 대·중 연습실, 리딩룸, 세미나실, 커뮤니티 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센터 휴관일인 월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대관할 수 있다. 문의 062-960-368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하정웅미술관 14일 이항준 교수 인문학 강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주제로 올 한해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이 6월 강연을 진행한다.

14일 오후 3시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이항준(사진) 호남학연구원 HK연구교수가 '어떤 인문학적 동상(夢想)'을 주제로 강연한다.

전남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철학전공으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이 교수는 '조선의 유학자들 캔타우로스를 상상하며 리와 기를 논하다' 등을 펴냈다.



강좌에서는 인문학자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인문학적 소양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를 나누는 예정이다. 한편 하정웅 미술관에서는 현재 '한국을 사랑한 독일인-베르너 샷세'전을 진행 중이다. 문의 062-613-713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